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제 8장 욕구와 영혼의 지배 II

◆ 1교시 영혼의 세 부분과 지·정·의

지난 시간에 그 영혼을 나누는 것하고 관련해서, 이제 영혼을 세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중에 두 부분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목마르지만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마시도록 하는, 그러니까 마시는 것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 마시는 것을 막는 부분으로 나누었구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439 c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그 439 d 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299쪽, 300쪽 넘어가서 보면, 이제 거기에서 그 헤아리게, 그러니까 300쪽에 시작 보면요, “영혼이 헤아리게 혹은 추론하게 되는 부분을 영혼의 헤아리는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것으로써 그 영혼이 사랑하거나, 배고파하거나, 목말라 하거나 또는 그밖에 다른 욕구들과 관련해서 흥분상태에 있게 되는 그 부분은 어떤 만족들이나 쾌락들과 한편인 것으로서, 비이성적이며 욕구적인 부분이라 부른다 해도 불합리하지는 않을 걸세.” 그러니까 헤아리는 부분, 그러니까 계산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혹은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을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logistikon* 이고요, 그 헤아리는 부분은 *epithumetikon*. 그리고 이제 욕구적인 부분은 비이성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 영혼의 세 번째 부분, 걱정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일단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누고 나서 세 번째 부분인 걱정은 그럼 대체 제 3의 것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글라우콘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300쪽의 중간쯤을 보면, 아마도 그중의 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소크라테스가 물어봤냐 하면, “걱정의 부분인데 그것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격하게 되는 부분 혹은 화나게 되는 부분은 제3의 것인가, 아니면 저들 둘 중에 어느 하나와 같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둘 중의 하나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냐, 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처음에 “욕구적인 부분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다” 하고 글라우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를 내는 부분도 이 부분과 같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이제 세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로만 나누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걱정은 제 3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이제 레온티오스라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고요. 그게 300쪽에서부터 301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 예를 보면, “레온티오스는 사람이 피레우스로부터 시내로 들어가다가, 시체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보고 싶어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짢아하면서 외면하려고 했다. 그래서 얼마동안 마음속으로 싸우면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보고 싶은 욕구에 압도를 당하자 두 눈을 부릅뜨고서 시체들 쪽으로 내닫더니, 보려 무나, 너희들 고약한 것들아. 저 좋은 구경거리들을 실컷

들 보려무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레온티오스라는 사람은 시체에호증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기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시체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이 시체들을 왜 보고 싶어 하느냐, 하니까 이제 어떤 성적인 욕구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레온티오스의 예를 보면, 처음에 시체를 보고 한편으로는 보고 싶어 하고 한편으로는 외면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욕구적인 부분이 이제 시체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적인 부분은 시체를 보고서, 그게 만약에 성적인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체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그것을 보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영혼 안에서의 대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욕구적인 부분하고 계산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하고 대립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 3의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두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보고 싶은 욕구에 압도당해서 시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레온티오스가 시체를 보고 싶은데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심적인 갈등이 있단 말이지요. 볼까, 말까 막 이려고 있는데, 그러다가 막 욕망에 굴복을 해가지고 시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나 보는 이 못난 놈, 고약한 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있는데, thumos, 이것은 이제 걱정이라는 뜻인데요. 걱정 혹은 화.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화를 내는데, 화를 누가 내는 거냐 하면, 어디에 대해서 내는 것이냐 하면, 욕구하는 부분. 여기서는 두 눈에 대고서 눈을 고약한 것들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눈 자체가 아니라 시체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욕구적인 부분에서는 시체를 지금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보고 싶어 하고서 그래서 이제 보는 쪽으로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를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그 욕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체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여기서는 같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성적인 부분하고 욕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갈등에서 이쪽은 시체가 있으면, 시체 보기가 있다면,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힘을, 시체를 보는 것을 막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걱정은 다시 시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애초에 시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하고 보도록 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어떤 두 개가, 힘이 작동하고 있다면 두 부분은 같은 부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분을 나누었던 말이에요.

▲ 다른 두 부분과 걱정의 차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 걱정이라는 것은 그럼 욕구적인 것하고 비슷하다고 글라우콘은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욕구적인 것하고 이 걱정이 똑같은 시체 보는 일에 대해서 하나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시체를 보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시체 보는 것을 막고 있다. 그

렇다면 이 두 부분도 같은 부분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에 대해서 서로 하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부분일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영혼을 나누는 데에 애초에 어떤 원리로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이 애초에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성적인 부분이라는 것 하고 계산하는 부분하고 걱정을 담고 있는 부분, 뭐 걱정적인 부분, 그 부분이 둘 다 시체 보는 것을 이제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애는 애하고도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애하고 애하고는 다르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 둘도 같은 것이면 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면, 303쪽 정도에 가서, “걱정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동물들도 가지고 있지만, 헤아림은 좀 나이가 들어서야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동물들도 화를 낼 줄 알고, 또 이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도 막 화를 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낼 줄 아는 부분은 어쨌든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이성적인 부분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화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이 같은 부분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글라우콘이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이제, 호메로스의 구절을 인용을 하는 곳이 303쪽에 나오는데요. “허나, 그는 제 가슴을 치면서 이런 말로 제 심장을 나무랐다.”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나 하면, 이것은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밑에 주가 나와 있듯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아시다시피 집에 돌아오지요. 집에 돌아오니 그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이 그 집에 있으면서 하녀들하고 성적인 행동들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서 오디세우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여 버리려고 그래요. 그 구혼자들,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을 다 죽여 버리려고 하는 어떤, 화가 나가지고, 죽여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가슴을 치면서 심장을 나무랐다는 구절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지금 그 자리에서 다 죽여 버리면, 죽여 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설치면 원래 계획했던 것이 틀어져버려요. 그 계획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봐서는 다 죽여 버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 순간에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행동을 하면 계획이 틀어지니까 지금 그러지 말고 좀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체보기는 레온티우스의 경우였는데, 오디세우스의 경우에는 구혼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당장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성적인 부분도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화가 막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당장 다 죽여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욕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하는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개네들 죽이면 안 된다, 참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시 동일한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부분하고 그쪽으로 가는 부분, 이 두 부분이 같은 부분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부분, 혹은 계산하는 부분하고 걱정적인 부분, 혹은 화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화내는 부분은 같은 부분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레온티우스의 예에서 보면, 이 걱정이라는 것은 욕구적인 부분하고 같은 부분일 수가 없다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는 그쪽으로 가고, 하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예에서 보면 이 걱정적인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하고 같은 부분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이 다 서로 다른 부분. 그래서 이제 영혼이 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논쟁을 편 것입니다.

▲ 영혼의 세 부분에 대한 오해 - ‘지·정·의’와의 대응관계

그런데 플라톤, 혹은 『국가』에서의 소크라테스가 영혼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고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 오해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오해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하고 그것이 다 오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정도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또는 어떤 심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것이, 흔히 하는 말이 지, 정, 의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많이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세 부분을 이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화내는 부분-그것을 이제 기개적인 부분이라고, 기개가 있다, 뭐 그런 말 하고 연결 시켜서 기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욕구적인 부분,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지, 정, 의’ 이 세 가지하고 마찬가지로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 정, 의라는 말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플라톤의 영혼을 셋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대충 지, 정, 의가 아니겠느냐. 특히나 ‘지’는 이성적인 부분하고 대충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플라톤이 세 부분을 나눈 것하고 지, 정, 의를 대비시켜 보려고 한다면 ‘지’라는 것 하고 이성적인 부분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 ‘의’ 이게 각각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이 잘 된다고 한다면 플라톤이 실제로 세 개를 나눈 것이 ‘지, 정, 의’ 세 개를 나눈 것이라고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겠지요. 기개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내는 부분이니 ‘정’ 이라는 것이 화내는 것 하고, 감정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의’라는 것이 무엇을 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냐, 욕구라는 것 하고 ‘의’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 정, 의’, 플라톤의 영혼 삼분설이 사실 이 ‘지, 정, 의’ 그렇게 셋을 나눈 것이라고,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 ‘의’는 영혼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나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플라톤의 영혼 삼분설이 ‘지, 정, 의’, 이 셋으로 나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 그림하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그리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잘 안 맞는 점이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 정, 의’ 라고 할 때 ‘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의지가 무엇인지가 그렇게 썩 분명치 않은 문제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 정, 의’ 세 가지를 얘기할 때 그 ‘의’가 단순히 욕구 일반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닌지도 썩 분명치가 않고요. 예컨대 우리가 의지라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의지가 약하다, 의지가 굳다, 뭐 그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지하고 이 욕구적인 부분하고는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어떤 종류의 쾌락에 굴복하는 경우에 의지가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쾌락에 굴복한다든지, 두려움에 굴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지가 약하다고 할 텐데. 그러면 의지가 만약에 욕구라고 한다면, 쾌락에 굴복하는 경우나 어떤 두려움에 굴복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이런 나의 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쾌락에 따른 어떤 욕구가 있고요, 의지와 쾌락에 따른 욕구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고 갈등을 하다가 내 의

지가 지는 경우에 쾌락에 굴복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쾌락에 굴복하거나 극복하거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경우라든지, 의지가 강해서 두려움을 극복했다, 뭐 이런 경우에도 두려움에 따른 어떤 종류의 욕구가 있고, 쾌락에 따른 어떤 욕구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굴복을 하거나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싸우는 어떤 다른 종류의 욕구가 있어야지만 극복한다, 굴복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지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플라톤의 영혼 삼분설과 관련해서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라는 것 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의지를 갖는다는,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것에 따른 어떤 욕구가 의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의미에서 의지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게 좋아 보인다 해서 그냥, 맛있는 음식이 있지만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단 것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먹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 그 욕구가 생긴다, 그때 욕구는 나의 의지는 아니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끌리는 것, 이런 것은 의지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림에서는 의지라는 것이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하고는 굉장히 다른 종류이고, 오히려 욕구적인 욕구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의’라는 것하고 욕구적인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의지라는 것을 이성적인 부분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지’하고 ‘의’가 다 들어가니까 좀 곤란해요, 그렇죠? 이 삼분설과 이것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하고 이쪽을 연결시키고 ‘의’하고 이쪽을 연결시키는 것은 혹시 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 해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구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예컨대 301쪽이에요, 430 b 같은 곳을 보면, “욕구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헤아림을 거스르도록 강요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꾸짖으면서 자기 안에서 그런 강요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는데, 이런 사람의 걱정이 마치 분쟁하고 있는 두 당파 사이에서 이성과 한편이 되는 경우 말일세. 그러나 거역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성이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욕구와 협력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이 구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기개적인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을 도와서 욕구적인 부분하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지금 430 b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의지를 바로 이성적인 부분의 어떤 욕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자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이성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X를 해야 한다, 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그런데 욕구는 지금 X를 하지 않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이성은 X를 하라고 하고 있고, 욕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둘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기개적인 부분이 이성의 편을 들어서 하지 않고자 하는 이 욕구하고 싸움을 벌이는데, 뭐랄까요, 동맹군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실은 의지이다. 그러니까 이성은 잘 계산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주고, 그 판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의지이다, 그리고 그것은 플라톤에서 보면 기개적인 부분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의지를 이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2교시 영혼의 욕구와 덕목들

▲ 1:1 대응의 불가능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정’이라는 것이 어떤 정서를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의’가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욕구적인 부분하고 정서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기개적인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 정, 의’ 하고 이것이 잘 맞으려면... 아까 의지라는 것이 이쪽하고 연결되는 것이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의지가 욕구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이 곤란하니까 의지를 이번에는 기개적인 부분하고 연결시켰다. 그러면 이 정서는 기개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저것 욕구하는 것하고 어떤 정서적인 것하고는 잘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기개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화를 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화를 내는 부분을 의지랑 연결시키고, 정서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도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 정, 의’ 라고 나누는 것 하고 이성적인 부분, 기개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을 나누는 것을 1:1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 정, 의’ 하는 것에서는 실제로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정서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스에서 pathe 라는 말은 영어에서 예전에는 주로 passion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emotion 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passion 이것은 걱정, emotion은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에서 pathe 라는 말, 혹은 감정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화 같은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욕구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칠정(七情), 이런 것을 이야기 할 때,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慾)’할 때 마지막에 있는 것이 ‘욕’이란 말이에요, 욕구. 그러니까 그 때 칠정에도 사실 욕구를 포함시킨다고 본다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감정이라고 이야기 하던 것에서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얘기할만한 것들, 그것들이 대개 기개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들, 배고픔, 목마름, 성적인 욕구, 이런 것 들을 다 일종의 감정에 그리스인들은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 정, 의’ 라고 얘기를 할 때 정서에 해당 되는 것은 기개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을 합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의’는 무엇이냐. ‘의’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성의 부분이 ‘지, 의’를 같이 넣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과, 그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행동을 이끌어 가는 힘을 보통 분리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플라톤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왔다, 혹은 플라톤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실제로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어떤 힘과는 구별하는 경향이 있지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어떤 종류의 욕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 하고 그것을 해야지 되겠다, 하고 싶은 어떤 마음하고 두 개를 약간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는 어떤 판단이고, ‘의’는 판단을 실행하는 원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국가에서의 소크라테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단과 욕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것에서 좋다는 판단을 내렸으면 그것이 바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욕구가 반드시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이 두 부분은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부분의 구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별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 영혼의 세 부분이 지닌 각각의 욕구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성적인 부분은 그것에 따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바로 지금 우리가 흔히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고요. 기개적인 부분도 그것에 따른 욕구가 있어요. 욕구적인 부분도 그것에 따른 어떤 욕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적인 부분만 욕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개적인 부분도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성적인 부분도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개적인 부분의 욕구는 우리가 봤었죠, 오디세우스가 하녀들을 다 죽여 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 그것도 욕구란 말이에요. 그것은 기개적인 부분에 속하는 욕구예요. 그리고 물마시지 말자, 말아야 되겠다는 욕구. 혹은 지금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욕구들, 그런 것은 전부다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들은 다 어떤 종류의 욕구들을 창출하고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영혼을 셋으로 나눈 것은 이 욕구들하고 관련해서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 어떤 것을 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들, 그 욕구들을 가지고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이성적인 부분, 기개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들에 속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들이란 것은 뭐냐 하면, 이성적인 부분이 계산하는 것인 한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잘 따져보고 그 따져봄의 결과로 생겨나는 욕구들, 그런 욕구들은 전부 다 이성적인 부분에 속하는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성적인 부분의 욕구들은 전부 다 이성적인 욕구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 두 부분은 둘 다, 아까 이제 욕구적인 부분만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둘 다 비이성적인 그런 욕구들이예요. 어떤 점에서 비이성적이나 하면, 이 욕구들은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따져본 것이 아니라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이성적이라는 말이, 이성이라는 말을 아까 *logistikon*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계산한다, 따져 본다는 뜻이거든요. 계산하는 것이 없는 그런 욕구들. 그러니까 계산과 무관한 종류의 욕구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계산과 무관한 욕구라는 점에서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무엇이나 하면, 이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는, 이것은 제 해석이 들어간 관점입니다만, 약간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약간 반성적 계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요. 반성적, 또는 회고적.

가장 대표적인 욕구, 기개적인 부분의 욕구를 ‘화’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경우에 화가 나느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주어진 사태에 대해서 그 사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여겨질 때 내가 화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렸단 말이에요. 한 대 때려서 막 맞아서 아파요. 맞아서 아픈 경우에 내가 그러면 화가 날 수가 있겠지요. 화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쳐서 나에게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나쁜 상태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내가 화가 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예컨대 지하철에서 약간 흔들거리다가, 또는 만원버스에서 흔들리다가 옆 사람이 밀려서 나를 팡 쳤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내가 맞아서 아프긴 아프더라도 특별히 화가 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부딪혔지만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낸다거나 하지 않지요.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경우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나쁜 것으로 인식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화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때려서 아프게 했다, 그러면 나도 가서 한 대 때려 준다든지 그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돈을 뺏아 갔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경우에 뺏아간 사람을 잡아다가 혼내줘야지 된다는지, 뭐 그런 욕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욕구들은 기개적인 부분과 관련된 욕구들이에요. 그것은 주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돌아 봤을 때 그 일이 나쁘다는 판단, 혹은 좋다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판단과 연관이 되는 어떤 종류의 욕구들. 그때 그 판단은 그런데 비이성적인 한해서는 전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내게 드는 판단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기개적인 부분의 욕구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뭔가를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 먹는 것이 좋겠다, 혹은 날씨가 추우니까 지금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그 상태를 가졌으면 좋겠다, 혹은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런 종류의 판단들과 관련된 것들이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다 욕구인데, 욕구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갈리는 것이냐 하면, 어떤 욕구들을 갖고 있느냐, 이리저리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따져봐서 그 결과로 생겨나는 욕구들, 그런 욕구들은 이성과 관련된 욕구들이고요. 따져보지 않았을 종류의 욕구들과 관련해서 둘 중에 약간 앞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갖겠다, 혹은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이고요. 지금 주어진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 기개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것에 대한 좋음과 나쁨에 대한 판단들이고요, 이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좋음과 나쁨에 대한 판단들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욕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좋다는 판단과 좋지 않다, 나쁘다는 판단들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것을 가지려고 할 테고요, 그것이 나쁘다는 판단이 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할 텐데, 그 대상이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들과 상관이 있고요. 그 대상이 지금 내

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기계적인 부분의 욕구들하고 상관이 있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갖고 있지 않은 것이든지 간에, 좋을지 나쁠지 따져봐서 하는 것들은 전부다 이성적인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된 욕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 정, 의’ 라고 나누는 것과는 약간 계기가, 나눔의 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좋겠고요.

▲ 영혼의 세 부분과 이상 국가의 세 계급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 나눔 각각의 부분은 이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요. 이쪽은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쪽은 돈을 추구하는데요. 진리는 어떤 지식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4권에서.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것이라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과정을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영혼을 플라톤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하고 플라톤이 2권부터 4권까지 어떤 이상 국가를 묘사하면서 거기의 세 계급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영혼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만, 『국가』 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상 국가는 세 계급을 가진다, 그래서 통치자 계급과 전사계급,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애초에 『국가』 편이 시작된 것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들을 시작했고요. 특히 2권에서부터, 2권에서 아데이만토스가 정의가 대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좀 고찰을 해 달라, 그것을 좀 통해서 정의가 과연 이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국가도 이야기하고 영혼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덕목들, 지혜, 용기, 절제

실질적으로 국가 4권에서 보게 되면, 정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무엇이다, 용기는 무엇이다, 절제는 무엇이다, 그다음에 정의는 무엇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되요. 플라톤의 대화편들에서 보게 되면 용기가 무엇인가, 절제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주제만을 다루고 있는 독립적인 대화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라케스』 같은 대화편이 용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절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파르메니데스』라는 대화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라케스』나 『파르메니데스』에서 용기가 뭔지, 절제가 뭔지 얘기를 안 하고 결국 대화편이 끝나는데, 정의에 대해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 편에서는 오히려 용기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다 하게 되요. 어떻게 보자면 정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려면 정의가 무엇인지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데 왜 용기도 이야기하고 절제도 이야기하는가 하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가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상 국가를 그리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국가에서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대답을 하게 되는 계기는, 일단 트라시마코스는 사람하고 트라시마코스의 이야기를 이어받은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의 주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변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트라시마코스는 부정의를 찬양하지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찬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라시마코스는 부정의를 찬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정의하고 지혜를 연결시킵니다. 또한 용기도 그것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예컨대 104쪽에 보시면요, 348 d입니다. 103쪽 끝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정의는 훌륭하므로 올바르지 못함, 부정의는 나쁨으로 일컬겠소.” 하니까 트라시마코스가 “그렇지 않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 유익하지만 정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주장하고요. 104쪽 넘어가면 “그러면 뭐라 하겠느냐.” 하니까 “정반대ですよ.”, “그럼 정의가 나쁜 것이냐” 하니까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고상한 순진성이다.” 하고요. “부정의는 무엇이나?” 하니까 “훌륭한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정의가 훌륭한 판단. euboulia 라는 말은 바로 지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잘 판단, 훌륭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정치적인 계기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들을 내리는 것들, 그런 것이 euboulia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트라시마코스가 지혜라고 연결시킨 부분이고요. 이것은 트라시마코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글라우콘이나 아데이만토스도 그런 이야기를 받는데요. 예컨대 361 b 130쪽을 보시면, 130쪽 끝인데요. “또한 자기가 저지른 올바르지 못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발각될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능히 나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할 줄 알고,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기와 완력을 통해서 또 친구들과 재산을 확보해 갖고 있음으로써,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납득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지혜로운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용기와 완력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행사할 때 용감하게 그런 것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제 글라우콘이 지금 지혜와 용기를 이야기 했지요. 138쪽을 보시면, 365 c 인데요, 역시 그 맨 끝을 보시면, “나의 앞쪽과 외양은 훌륭함의 음영화로 빙 둘러 그려 놓되, 뒤로는 가장 지혜로운 아르킬로코스의 악하고 교활한 여우를 끌고 다녀야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지혜롭고 교활한 여우, 그것이 부정의를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와 지혜를 자꾸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용기도 부정의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이에 비해서 소크라테스는 부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지혜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행동이 용기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대립을 보면 트라시마코스는 부정의가 이득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부정의가 이득이 된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득이 된다는 생각에 이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부정의가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부정의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예요.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이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가 뭐냐, 부정의가 뭐냐, 라는 얘기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도대체 뭐냐, 용기가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들 까지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대립에 다 포함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기가 뭐다, 지혜가 뭐다, 절제가 뭐다, 여기 절제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절제는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트라시마코스나 글라우콘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의한 사람의 계기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부정의한 행동을 잘 계획해서 할 수 있고요, 잘 걸리지도 않도록 계획도 잘 짜고요, 혹시 걸리면 지혜를 발휘해서 걸린 상황을 잘 모면하거나, 모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용감하게 나서서 다 죽여 버린다는지, 그러기도 해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정의를 잘 하기 위해서 절제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뭔가 계획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어떤 부정의한 행동을 안 하고 정의로운 척 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절제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에서 생각되는 덕들이 부정의하고 함께 간다는 주장을 하고요. 부정의하고 함께 간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부정의가 바로 덕이라는 주장을 트라시마코스는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반대로서 소크라테스는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 정의가 바로 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덕이 무엇이고, 악덕은 무엇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줘야만 이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에게 대한 충분한 대답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왜 국가라는 것을 끌어들이게 되는지, 그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